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파리올림픽 한국 단복, 트렌디 vs 대표성 잃어

오는 26일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둔 가운데 각국의 단복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 대표단 단복은 무신사 스탠다드가 제작, MZ세대를 겨냥한 캐주얼 정장 스타일로 호평과 함께 대표성을 잃었다는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무신사의 자체 의류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는 지난 9일 국가대표팀의 개폐회식 단복을 공개했다.

이번 단복은 벽청색의 '벨티드 슈트 셋업'으로 재킷 위에 벨트를 걸친 형태다. 벽청색은 동쪽을 상징하고 젊음의 기상과 진취적인 정신을 나타내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보여준다.

또 재킷 안감은 청화 백자의 도안을 새겨넣어 한국의 전통미를 부각, 벨트는 전통 관복에 허리를 두르던 각대를 재해석했다. 이와 함께 재킷 칼라 안쪽, 티셔츠, 슬랙스, 스니커즈 인솔 등에 각각 '팀코리아(TeamKorea)' 로고가 각인됐다. 형태부터 색상까지 전통을 가득 넣었음에도 평상복과 같은 세련됨에 젊은층 사이 '문신템(문신처럼 계속 입는다는 뜻)'이란 평이 나오고 있다.

통상 국제 스포츠대회 대표단 단복은 각 나라를 대표하기에 대형 패션기업에서 도맡아 하지만 론칭 8년 차인 무신사가 제작을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무신사 스탠다드가 젊은 층이 즐기는 브랜드인 점과 국가대표 선수 연령이 평균 10~30대로 젊어 활기찬 이미지를 위해 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통성과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만큼 '기성복' 느낌 보다는 국가의 개성이 부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몽골이 자국 전통의상을 재해석한 형식의 단복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반응이 거세졌다. 몽골 국가대표단 단복 제작은 자국 브랜드 '미셸앤아마존카(MICHEL&AMAZONKA)'에서 도맡았으며 유럽의 클래식함과 몽골 전통의 자수를 결합해 독특한 패션을 만들어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파리 올림픽 단복에 대해 '한국의 미를 일상복에 적절히 녹여내 트렌디하다'는 평과 '국가 고유의 특색이 없어 아쉽다'는 평이 갈리고 있다.

#SnackNews #한국대표단단복 #박소영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한국 대표단 단복.

무신사 인스타



몽골 대표단 단복.

미셸앤아마존카 인스타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진일보

“전남친 협박·폭행 40억 뜯겼다”

구독자 101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프앙(박정원, @tzuyang70)이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프앙은 지난 11일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올린 '프앙 과거 폭로 협박 뒷돈' 영상에 대해 해명하며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돈기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튜버업소에서 일하게 했으며 받지 못한 방송 정산금만 최소 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세연'은 프앙이 '렉가 연합'으로부터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진일보

광주 헬스장 '먹튀' 주의보

광주 헬스장, 필라테스 업체들의 '먹튀' 행위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만 수백명에 달한다. 지난 10일 광주 광산경찰은 쌍암동 한 대형 헬스장 업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헬스장은 필라테스, 줌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원 수만 수백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에는 선결제 할인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잠적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회원권을 선결제해,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진일보



전남 템플스테이 힐링 명소

진일보



어디까지 오를까

북적대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전남의 아름다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명소를 소개한다. 도갑사(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는 조선국사의 얼이 깃든 곳이다. 백련사(강진군 도양면 백련사길 145)는 향긋한 차와 아름다운 동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있는 대원사(보성군 문덕면 죽산길 506-8)와 잔잔한 파도소리가 울리는 신흥사(완도군 완도를 청해진남로 101-1), 땅끝 마을 달마산에 위치한 미황사(남군 송지면 미황사길 164)에서의 템플스테이도 즐거움을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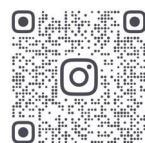
김밥 가격이 또 올랐다. 주재료인 '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3423원이던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 3462원으로 상승해 곧 3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같은 달 가격은 3200원으로, 1년 만에 8.19%가 올랐다. 이는 마른김 도매가격이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이다. 마른김은 한 속(100장)당 평균 1만7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4% 올랐다. 김값 상승의 원인으로 수은 상승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기상성 질병, 수출 반등으로 인한 국내 공급량 감소 등이 꼽힌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